

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, 상반기 수질환경보전회 개최

성낙성 기자 jeb08585@ksmnews.co.kr 입력 | 수정 2025.06.22 20:04



↑↑ 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수질환경보전회를 개최했다.사진/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제공

[경상매일신문=성낙성기자]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지난 19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수질환경보전회를 개최했다.

수질환경보전회는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을 관리하고 청정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있어 저수지 시설관리자인 공사 및 여노연 성주군의회 의원, 배선호 한국농업경영인 성주군연합회 회장, 도갑수 금수강산면 농업인단체 위원장, 조형철 금수강산면장 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.

이날 회의는 지사의 저수지 및 수질관리 현황, 금년도 수질관리 목표와 더불어 지자체, 농업인단체, 공사의 역할분담 및 활동방안에 관해 논의했다.

이돈문 성주지사는 “현재 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중 하나인 성주저수지는 우수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. 성주저수지 외에 6개소 저수지에 대해서도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여 청정 농업용수 공급 목표로 수질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